

판

VOL. 16
KT노동조합 소식지

판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년도 단체 교섭

9. 21. 주식회사 케이티 · kt 노동조합



다시 '희망'을 묻는다

기세등등했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일찍이 겪은 적 없던 긴 장마와 집중호우는
속수무책 안타까움을 무참히 던져 놓았습니다.
진정국면을 기대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숨 돌릴 겨를 없는 긴장감을 더해주고
여유도 없이 몰아닥친 태풍이 생채기를 내놓았습니다.

KT도 이번 집중호우에 전국의 사옥과
많은 시설물이 침수 피해를 입어
노동조합은 피해 현장을 살피고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이천을 비롯한
안성의 수해 현장을 찾아
케이블 이설 등 현장 작업을 지원하고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전남지역에
수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회사에 요구해 실행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신속한 복구 작업을 펼친
조합원들의 노고로 다행히 대국민 서비스는
만전을 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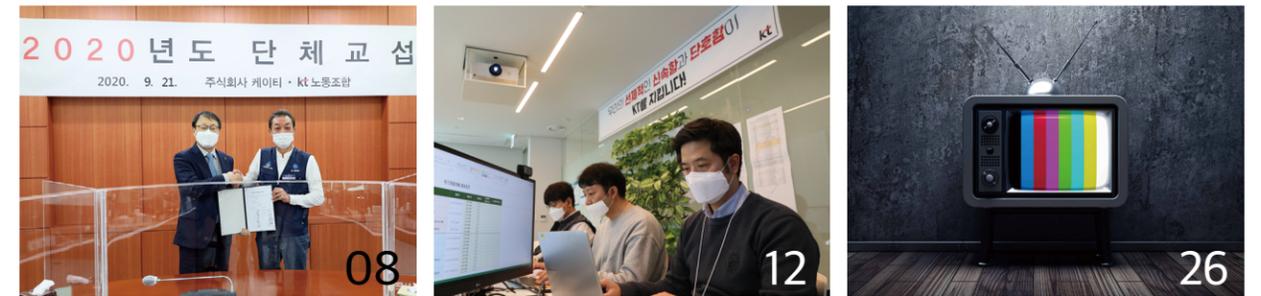
어려울 때일수록 KT는 늘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경주해왔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의료진과
소외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에
치솟은 물가와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탓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자양분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희망을 향한 질주를 계속해 나갑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공동의 가치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노동조합이 늘 한 발 앞서 달려가겠습니다!



Contents

KT노동조합 소식지 vol. 16



04 KTTU NEWS
주요 단신 뉴스

08 커버스토리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
2020년 단체교섭 타결

12 Focus
코로나19를 뚫고 성장해가는
KT노동조합

16 현장속으로
나누고 상생하는 희망의
KT노동조합을 만들어갑시다

20 기획특집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한국판 뉴딜'

24 이슈&사회 1
장마와 태풍이 남긴 인류의 숙제

26 이슈&사회 2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전망

28 Inside
마음만으로 풍성한!
2020 Ontact 한가위

30 [전문가 칼럼] 노동 이슈通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기관 노동이사'

32 카툰
2020년 단체교섭 결과
향상된 복지·복무제도

34 독자후기 및 퀴즈
독자 당첨자 안내

판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명사로,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KTTU

NEWS

KT TRADE UNION NEWS

VOL. **16**
2020 August & September

2020 조합원 총회
단체교섭 가협정(안) 찬반투표
최종 집계결과 찬성률 92.7%

가결

법정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세요!

2020년 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9.22(화) ~ 10.8(목)

2020년 3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25일(금) KT분당사옥 회의실에서 2020년 3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노사는 먼저 3분기 지방 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온라인 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비대면 근무환경에 최적화된 IT솔루션 도입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온라인 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2020년 4분기 내 ERP상 온라인 학습 신청 기능을 신규개발(학습 승인 시 해당기간 KTalk 상태 표시, 교육포털과 연계 교육실정 등 반영)하기로 했다.

비대면 근무환경에 최적화된 IT솔루션 도입은 2020년 4분기 내 효율적 업무환경 지원을 위한 통합 IT솔루션 도입(소통/협업 공간 마련, 메일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할 계획이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한부모 가정은 25일)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단체교섭 가협약(안) 조합원 총회 결과 찬성률 92.7%로 가결

2020년 9월 23일(수) ~ 24일(목)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2020년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 결과, '2020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안)'에 대해 KT노동조합 조합원 17,682명 중 15,929명,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조합원 26명 중 17명의 투표를 포함하여 총 90% 투표율과 찬성 14,784표(92.7%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해관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내수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상당수 대기업 사업장이 임금동결로 단체교섭을 타결 짓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섭결과 임금 2% 인상과 예년을 상회하는 일시금 지급, 세대간 균형을 맞추는 제도개선은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산물이었다"며 "이런 것에 대한 보람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조합원의 의견개진과 조연에 어긋남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 신청대상
퇴직연금제(DB형 또는 혼합형)가입 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계약직 제외)
- 신청유형(택1)
-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단 기존 혼합형 가입자는 DC형으로만 전환가능
※ 퇴직연금제 전환 신청서 작성(금융기관 제출, 회사제출 불필요)
- 법정 중도인출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지원접수
9.16(수) ~ 22(화)

1차 심사
최근 3년간 연평균 7마일리지 이상
(당첨자 수명지 10명 내)

최종선발
고용기간 1년 기용 + 1년 재고용(우수성과자)

SCInsa@kt.com 이메일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전 기관”

이행철저

2020년도 4분기 시니어 컨설턴트(Senior Consultant) 선발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의 숙련된 기량을 지속 활용하기 위해, 직무전문성이 높은 정년 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로써 2020년 4분기 시니어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 처우 및 수행업무
 - 고용기간 : 1년 기본 + 1년 추가 가능(우수성과자)
 - 수행업무 : 기존과 동일직무 수행 원칙
 - 총 보수 : 3,600만원/년 · 복지사항 : 기존과 동일
 - 단, 연금저축, 상조, 상호부조, 대부, 학자금지원 제외
- 지원자격
 - 2020년 11월 ~ 2021년 1월 정년퇴직 예정자 중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자
 -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7 마일리지 이상(`17~`19년도 평가&기타 마일리지)
 - ② 1등 직무전문가 수행자 (최근 10년내)

중앙선관위, 4개 통합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 36명 위촉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위원 정승환)는 9월 10일 오후 2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 위촉 등 주요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 의안은 통합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 해촉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4월 23일 개최한 2020년 전국대

의원대회에서 3호 안건 <지방본부 통폐합에 관한 사항>에 의거 현재 12개 지방본부 중 부산, 대구, 본사를 제외한 9개 지방본부를 4개 지방본부로 통합하는 안건이 가결된 바 있고, 8월 25일 개최한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합지방본부 위원장 선출을 위해 '통합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방본부 조합원 총회 공고에 관한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을 공유했는데 이는 통합된 4개 지방본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 공고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통합대상 지방본부위원장이 각각 동시에 소집공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전국지부별 '재택근무 이행여부' 전수조사 실시

노동조합은 8월 31일(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감염 확산세 지속에 따른 전 기관 재택근무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수조사 실시는 일부 지역본부에서 재택근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은 각 지부별로 참여 인원과 현황을 철저히 파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불이행이 적발될 시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또한 회사에도 이를 통보하고, 대책 방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8월 24일(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대응 계획과 관련하여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재택가능 인원의 전기관 재택근무 시행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희망퇴직 시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20년 3분기 희망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했다.

- 신청자격 :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분기 임금피크제 도래 예정자
 -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
 -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
- ※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신청방법 :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희망퇴직 신청서 접수
 - 단, 공상/장애에 대한 증명서류 및 신청사유 제출 必
 - ※ 증명서류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병원급 진단서

전남 수해 피해지역 방문 및 격려금과 성금 전달

KT노동조합은 8월 26일(수), 북광주지부 등 전남지방본부를 찾아 격려하고 수해피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파악했다. 전남지역은 대규모 수해 피해 및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순천지부 등 전남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7명이 산사태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반파되거나 완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전남지방본부는 수해 피해로 실의에 잠긴 조합원을 돕고자 지난 주 전남지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중앙위원장 격려금을 이날 함께 전달했다.

한편 앞서 김해관 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뜻 성금을 기탁해 준 임직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연재난은 특정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재난 극복에 동참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중앙위원회 및 제5차 산하조직대표자 연석회의



KT노동조합은 8월 25일(화) 10시 30분부터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어 제5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통합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합지방본부 조합원 총회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3개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1호 안건인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조직운영 규정의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지방본부 운영의 효율을 꾀했고, 2호 안건인 통합지방본부 선관위 구성과 3호 안건인 통합지방본부 조합원 총회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오는 연말에 치러질 지방위원장 선출을 대비, 지방본부 통합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노동조합은 이어 제5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난 18일(화) 제3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조합직원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2020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KT노동조합은 8월 21일(금)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을 열고 수감결과를 경청했다.

회계감사위원회 김동영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조합의 회계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도 상반기 결산, 지출결의서, 각종 대장, 증빙서 등을 대상으로 조합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집행에 있어 약간의 경미한 지적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국장을 통해 시정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코로나19’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조합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총평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코로나로 불편한 상황임에도 올해 상반기 회계감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고 인사한 뒤 “마지막까지 선명하고 규정과 원칙에 어긋남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전기관 재택근무 시행

KT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대응계획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관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 재택근무 시행
 - 필수재택: 임산부, 건강취약자, 육아직원(개학연기/휴원), 유사 증상자 등
 - 전 기간 -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재택가능 인원의 100% 재택 - 연쇄 감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주요 직책자 및 임원도 순환재택
- 전사적 대응수준 강화
 - 단체활동 및 회의: 20인 이상 금지 (사육 내 층간 이동 제한)
 - 타지역 이동: 불요불급한 출장 중단
 - 편의, 복지시설: 중단(클라운지,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카페, 저층부 공용회의실, E/V 저층은행 등)
- 현수준 유지사항
 - 해외방문 : 금지(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승인)
 - 출근방식 : 시차출근 : 출근시간대 (7~11시) 분산, 직출직퇴 : 영업직무 사육출입 최소화
 - 집중근무: Core Time(11~15시) 이석 및 사육 내 이동금지
 - 구내식당: 배식시간 분산운영 및 한방향 식사 (외부인 출입통제, 도시락 판매권장)
 - 유사증상: 코로나19 유사증상 발생 시 출근 금지 및 즉시 검사
 -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구비: 마스크 미착용시 사육 출입제한(사육내 이동시 착용필)
 - 체온검사: 열화상 카메라 운영(출근, 점심시간 등), 체온계 구비
 - 고객접점 : 개통A/S 및 플라자 마스크, 손 소독제 사용 의무화

노동조합, 이천 및 안성 수해 현장 케이블 이설 및 차량 안전유도 등 복구작업 지원



KT노동조합은 8월 11일(화) 이천 송계리 및 안성 수해 피해지역을 격려 방문하고 전주 건식 지원 등 현장 작업을 도왔다. 이천-안성 지역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큰 폭우피해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다. 노동조합 최창복 조직처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전주 건식 작업 및 고압전선 및 케이블 이설 과정을 돕고, 통행 차량의 안전 운전을 유도했다.

이날 최창복 조직처장은 “수해지역의 피해는 많은데 복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달려왔다”며 “조합원들께서도 작업 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험 요소를 거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서로 합심해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비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회들은 전국 각 지역의 수해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0년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 시행

장기근속 조합원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도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을 시행했다.

- 대상 및 휴직기간
 - 신청대상 : 전 직원(상무보/임원/계약직 제외)
 - 근속 1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 근속 2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또는 1년 휴직 중 선택
- 신청자격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휴직복귀 예정일 기준)
 -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징계처분기록말소 또는 사면 시 신청가능
 - ※ 리프레시 휴직 기 사용자는 신청불가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 2020년 단체교섭 타결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의 2020년 단체교섭이 결실을 맺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올해 단체교섭이 어느 해보다 어려우리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예상한 바대로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난 2년의 활동 성과를 심화시켜 그간의 미진했던 현안들을 보완해 마무리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권익 향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표자회의를 통해 '조합원의 뜻과 열망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는 의지를 강력히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올해 새로운 CEO 체제에서 비상한 각오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회사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전체 조합원의 열망을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를 빌미로 회사 측이 구태의연한 태도로 교섭에 임할 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KT노동조합은 어려울수록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의 힘을 발휘해 국민기업 KT의 자부심어린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이번 단체교섭이 조합



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노동조합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단체교섭의 매 과정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총력을 기울였다.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발걸음

단체교섭 준비의 출발은 KT노동조합이 지난 4월 전국대의원대회 당시 단체교섭 사업방향을 확정한 때부터다. 교섭 전담반을 가동해 올해의 정세와 전략을 논의하고 교섭안건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의견 조사를 전국에서 시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단체교섭에 대비해왔다. 5월 6일부터는 사흘간 교섭 전담반 워크숍을 열어 산업 전반의 이슈와 향후 발생사항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하며 철저히 준비에 돌입했다. 6월 15일을 시작으로 전국에서는 지부별로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돼 27개 문항에 1만 3,419명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과 단체교섭에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교섭안 마련에 몰두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6월 22일부터 사흘간 전국을 돌며 현장 의견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제2노조인 새노조의 의견도 받아 모든 의견과 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리고 8월 18일, 제

3차 중앙상무집행위원 회의에서 단체교섭 4개 분야 9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조합원 열망 담은 요구안, 사측 결단 촉구

8월 27일, 1차 본회의가 개최되면서 4개 분야 9대 요구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회사는 경영 부담이 상당할 수 있겠지만 KT는 타 산업·기업에 비해 직접적인 타격은 미미한 편"이라며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원 전체가 직접 참여하여 만든 절박한 내용이므로 소모적 논쟁보다는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CEO 또한 "노와 사, 조합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답하며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제1차 임금분야 실무교섭회의가 개최된 다음 날, KT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장기성과급제도 도입 △명절상여금 신설 △사기계발비 증액 등 임금분야 4대 요구안은 1만 3천여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안전임을 들어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배분인 만큼 사측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진 복지·제도개선 실무소위에 회사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목적사업비 650억을 출연하겠다'고 말했고,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육아 돌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건강검진제도 개선 △입사 전 대학원 학자금 지원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창업지원 휴직제도 개선 △반차확대 △유연근로제 개선 등 제도 확대 및 개선을 추가로 요구했다.

총 23회 공방 끝 합의

균형잡힌 제도 발전, 복지도 한 단계 상향 성과

회의는 약 3주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입장만 반복할 뿐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KT노동조합은 노사의 계속되는 소모전으로 향후 일정이 무의미함을 선포하고 회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9대 안건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을 멈출 수는 없었기에 KT노동조합은 CEO의 리더십으로 보다 의미 있는 최종안을 제시할 것을 사측에 최후 통첩했다.

긴장 속 난항이 계속된 가운데 노사는 21일 3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임금, 인사·보수, 복지 및 복무제도 개선에 대한 가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KT노동조합과 회사가 8월 27일 단체교섭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실무소위원회와 축조심

의 등 총 23회에 걸친 테이블 공방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김해관 위원장은 “매 순간 임기 내 마지막 단체교섭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진행된 협상이지만 조합원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임금분야는 물론 세대 간 균형 잡힌 제도 확립에 주력했고 복지수준도 한 단계 상향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가협약 체결 이후 KT노동조합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파했다. 재택근무 중인 조합원에게는 합의안 설명자료를 이메일과 문자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 후 9월 23일부터 양일간 2020년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여 총 90% 투표율과 찬성 14,784표(92.7% 찬성률)로 2020년 단체교섭 가협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25일 11시 KT분당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정식 협약을 체결했다.

여러 약재를 넣고 최선을 다해 성과를 도출한 올해 단체교섭은, 결과가 비록 조합원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조합원의 고군분투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 자평해 마땅하다.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의 마지막 결실에 밑거름이 되어준 조합원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남은 시간까지 약속된 행보를 힘차게 이어갈 것이다.



2020년 단체교섭 결과

임금

구분	내용	시행일
협약임금	2% 인상(기준급+역량급)	2020.10.23.(소급)
일시금/주식	일시금200만원 / KT 주식 45주	2020.10.23. / 2020년 중

인사/보수

구분	내용	시행일
기준연봉 등 보수체계 개선	기준급과 역량급을 '기본급'으로 통합, 기준연봉 인상식 조정 기본급 x (1+협상인상률) x [1+(개인성과평가 인상률x0.7)+(개인역량평가 인상률x0.3)] 성과급 연간 지급률 조정 (지급총액은 기존과 동일) G직 : 525±105%, A직 : 374.5~1,533% *월 기본급 기준	2021.1
현장 장기근무 고성과자 발탁승진	대리/과장 10년차 이상 & 승진마일리지 24마일(대리)/32마일(과장) 이상 대상자 중 부서장 추천 및 인사위 심사를 통해 발탁승진(1회성)	2020년 직급승진 시
창업지원 휴직개선	지원자격 현실화 : 근속 20년 이상 → 만 56세 이상 직원 휴직기간 확대 : 18개월~42개월 → 30개월~정년퇴직 시점 보수 : 최초 1년 6개월간 유급(월 기본급 100% 지급), 이후 무급	2021.1

복지

구분	내용	시행일
미래육성 포인트 신설	대상 : 입사 10년차 이내 & 만 40세 미만 직원 지급액 : 연 50만 복지포인트 제공	2021.1
상조서비스 개선	시행일 현재 재직자 중 희망직원(상조서비스 구좌 추가운용 방식 : 회사와 직원이 10년간 월 균등금액(15,000원) 납부	2021.5.1
건강검진 제도 개선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배우자의 건강검진 단가 상향 -연간 1인당 15만원 → 20만원	2021년 건강검진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직원 대상(배우자 포함) 난임시술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지원 -재직기간 중 최대 300만원	2021.1
가계안정 대부개선	'입사 전 학자금 대출금 상환 무이자 대부' 지원 대상에 대학원을 추가	2021.1
생활법률상담서비스 운영	민사일반, 주택·임대차 등 생활법률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 시행 ※ 시범운영 후 확대시행 검토	2021.
사내근로 복지기금	650억원 출연	2020년 중

복무

구분	내용	시행일
안식년 휴가 확대	근속 5년 도래시 휴가 2주 사용 ※ 회사 부여 휴가일 + 개인 연차일 연속 사용 (각 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직원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 의무화 ※ 보수 등 기타 근로조건은 정상근로시와 동일	
반차제도 개선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반차 사용횟수 확대(최대 14회→20회)	
부서장 재량 포상휴가 신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장 재량으로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7일의 포상휴가 부여 가능	2021.1
유연근로제 개선	유사제도 통폐합 - (기존) 선택근로제, Core Time 근로제, 가족사랑유연근로제 - (개선) 선택근로제 근로시간 : 일 최소 4시간(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결정, 주 단위 신청) 근로 가능시간대 : 06시~20시(필수근로시간 11시~15시 폐지)	

코로나19를 뚫고 성장해가는 KT노동조합 KT의 ICT, 언택트로 재도약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은 자발적인 극복 노력으로 상황에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노사공동 대응과 활동을 이어온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ICT가 산업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를 실감하게 됐고 KT는 이를 신성장의 발판으로 일거냈다. 위기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열어가는 KT의 주역이자 원동력은 KT노동조합 조합원이다.



8개월째 코로나19 대응 역량 결집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KT노동조합이 감염병 대응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지 8개월이 넘었다.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설 연휴를 지날 때만 해도 일어날 이후의 사태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3천여 명의 감염자와 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불길처럼 번졌고, KT노동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바로 대응에 돌입했다. 설 연휴 직후 업무 복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고, 1월 28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 협의사항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그 출발이었다.

이후 KT휴양시설을 잠정 운영 중단했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 경험이 있는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또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바이러스 예방 행동요령을 공지하는 한편, 전체 사옥을 비롯해 KT플라자 내부에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내부 전체 방역을 시행했다. 고객과 접점이 많은 직원에게는 별도의 위생 교육을 실시해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힘썼다. 특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노사공동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KT노동조합이 예방조치의 강도를 더 높인 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 2월 23일 이후다. 2월 25일부터는 임직원의 해외 방문 및 출장, 사옥 간 이동을 금지해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어린이집과 스포츠센터 등 복지편의시설의 운영도 중단토록 했다. 또 사내·외 단체 활동 및 교육행사 전면금

지, 출근시간대 분산을 위한 시차출근, 구내식당 층별 배식시간 조정 등으로 다수가 모이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은 위생장갑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절반씩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전사2부제도 단행했다. 특히 초반 확진자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은 거의 모든 임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이후 KT노동조합은 재택근무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본부와 지사, 지점과 센터에 노사합동 현장복무 실태점검을 집중시행하고 사태에 만전을 기했다.

각종 행사 자제하고 지원 활동 서둘러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경북지역에 가장 먼저 집중 지

원을 서두른 건 당연한 조치였다. 3월 5일 박충범 산업안전국장(대구·경북지역 조합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의료진들의 치료 집중을 응원하고 소외계층을 살피자는 취지의 활동도 이어져 3월 12일 최장복 조직처장과 조합 간부들은 대구시 사회재난과를 방문, 손소독제와 의료진들이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 간식 등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 격려물품은 KT임직원들이 모은 사랑나눔 기금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주요 현실 사안에 대한 활동도 지속했다. KT노동조합 박충범 산업안전국장 등은 6월 15일부터 닷새간 회사와 함께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위생점검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이는 위생점검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 및 청결한 구내식당 운영,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김해관 위원장은 6월 24일부터 양일간 전국 지방본부를 순회해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로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정세가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이지만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가면서 짜임새 있고 완결성 있는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KT노사는 8월 24일부터 전 기관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전사적 대응수준을 다시 강화했다. 20인 이상 단체 활동 및 회의를 금지하고 사옥 내 층간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타지역으로 출장을 중단하고 복지·편의시설 이용도 중단했다. 이후 재택근무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해 각 지부별로 참여 인원과 현황을 철저히 파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이 적발될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대책방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기 돌파하며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는 KT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독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은 결실을 맺고 있다. KT가 올 상반기 영업 이익에서 성장세를 기록하며 내실 있는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KT노동조합에게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이다.

3,418억 원이라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18%나 증가한 2분기 영업이익은 단말 수익과 카드, 호텔 등 일부 그룹사 매출이 감소한 대신 무선, 미디어, 기업 간 거래(B2B) 등 핵심 사업의 성장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KT는 현재 5G, 기가인터넷 등 유무선 네트워크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솔루션을 결합해 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원하는 디지털혁신(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추진 중이다. 신사업의 수익이 아직까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2분기 무선사업 매출은 전체 40%에 이르지만, B2B사업은 전체 16%, 그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이 포함된 AI/DX 매출은 3%다. 하지만 B2B사업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업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한다.

KT는 이제 IT에 금융, 제조업 등 국내 다양한 기업과 손잡고 AI분야 연구개발에 투자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더이상 통신사업자에 머물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8월 7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는 ‘AI/DX Day’가 개최되어 이날 발표된 ‘ABC(AI, Big data, Cloud)사업 현황과 계획’이 KBN으로 전 임직원에게 중계된 바 있다.

언택트 시대 발맞춰 성장하는 KT노동조합

AI 상품개발을 넘어 개별 사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 출시도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얼마 전에는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화상수업·교재 제작 및 학사 관리가 이제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고장 등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스마트빌딩 서비스’도 선보

였다. 이는 KT 사물인터넷(IoT)관제센터에서 빌딩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바야흐로 빌딩 관리도 AI가 담당한다.

또 작년 9월 출시한 ‘지니블록’을 리뉴얼한 AI 교육 플랫폼 ‘AI 코딩블록’도 새롭게 출시했다. AI 코딩블록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존의 AI 코딩 방식이 아닌 AI 코딩블록을 쌓아가며 AI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원리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AI 교육 플랫폼이다. 이 코딩블록은 업계 최초로 스스로 학습하는 지도학습 및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 툴(Tool)을 탑재했다.

향후 AI중심의 산업 변화가 한층 빠르게 진행되리라 예상하는 만큼 KT의 입지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KT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조합원 개개인의 희생이고 잠재력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에 조합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KT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함께 고민하며 행동할 것이다.



나누고 상생하는 희망의 KT노동조합을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다소 안정되나 싶더니 최근 또다시 확산
 세로 접어들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올 상반기를 보
 냈는데, 선선한 가을 기운을 맛볼 여유도 없이 또다시 마
 스크를 쓰고 긴장의 끈을 동여매야 하는 일상이 계속됩
 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방역주체가 되는 동시에 산
 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의지를 모두 함께 모
 아야겠습니다.
 KT는 힘든 시기마다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이겨낸 기억
 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역시 다
 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노와
 사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민기업 KT로서의 역할은 모
 두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KT노동조합은 건전한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는 일에 앞
 장서 노력해왔습니다. KT를 비롯해 22개 기업 노사 10만
 명 구성원이 연대한 기업 간 노사공동 나눔협의회 UC
 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그 훌륭한 모델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사회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받으며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KT의 주도로 3개 회사가 함께 뜻을 모아
 첫발을 디딘 UCC는 이후 뜻을 함께하는 많은 회원사
 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상생의 노사문화와 노
 사공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합하자자는 합의를 이
 행해 오고 있습니다. IT, 통신, 의료, 환경, 다문화가족 지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업별 사업의 특성에 맞
 춰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

남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경의 개념이 무색해지고 공동체의 개념도 글로
 벌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단장을 맡은 UCC봉사단은 매년 여름 베트남 현지
 에서 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현지봉사활
 동은 KT의 화상 상봉을 비롯해 UCC회원사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의료봉사, 주택 건축보수와 같은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노력한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현
 지에서 UCC봉사단을 먼저 반기고 무척 신뢰한다는 것
 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지봉사활동은 봉사
 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국 간 민간관계에 신뢰를 쌓아가
 는 민간교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공식 지원기구인 UN SDGs로부
 터 사회적 책임실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기여를 인정
 받아 2년 연속 1위 수상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UCC
 는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의 글로벌 롤모델'로 이미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012년부터 이어지던
 베트남 현지 봉사활동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사태가 진정
 되면 봉사단은 보다 따뜻한 마음을 안고 변함없이 나눔
 을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 위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래 없는 장마로 전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도 전국의 사옥과 많은 시설물 1만 3천
 600여 건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KT노동조합 중앙



상무집행위원들이 즉시 전국 각 지역의 수해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밤낮없이 진행된 현장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다행히 복구는 조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KT노동조합은 산사태 경보가 내리지면서 폭우 피해를 크게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천과 안성을 방문했습니다. 피해 복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해지역 조합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집간부들은 8월 11일 이천 송계리 지역과 안성 수해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전주건설 작업과 고압전선 및 케이블 이설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보탤했습니다.

8월 26일에는 전남지방본부를 찾아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정도와 현장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전남지역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더욱이 지역 소속 조합원 7명이 산사태로 집이 파손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수해까지 더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조합원에게, 전남지역 임직원들은 동료들의 정성이 다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이어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도 이루어

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금에 동참한 조합원의 수고와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의 마지막 3년차인 올해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T노동조합은 올해의 첫 출발을 거창한 행사 대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노조창립과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의 이정표를 제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무엇보다 소중한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창립기념일 당시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상집간부 56명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안팎의 환경을 살피고 후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KT노동조합은 효사랑 축제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과 치매 예방을 위한 앱 활용 교육 등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의 경

제적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KT노동조합은 이러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KT노사랑 희망BOX' 나눔을 추진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은 한과와 생활필수품 등으로 마련된 희망BOX는 코로나19를 감안, 비대면 택배로 팔달구청과 강서구청, 안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800가구에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팔달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행복을 나눠준 KT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함박웃음을 짓는 어르신을 보며, 부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염원을 다시금 새기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반가운 문자도 받았습다. 희망BOX를 받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수녀님께서 보낸 그 문자에는 '어르신 한 분이 희망BOX를 받고 사람대접받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KT노동조합 조합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작은 명절 선물이 단지 물질적인 혜택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보다 큰 사랑과 희망이 되어 드린 것 같은 안도감이 저 또한 더불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KT노동조합은 앞으

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행보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 투쟁에 함몰돼 권력에 집착하던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집단의 기득권에만 집착한다면 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경쟁보다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KT노동조합이 마땅히 노력해야 할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념과 국경을 넘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KT노동조합의 존재이유와 가치는 이웃과 함께하기에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KT노동조합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w Deal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한국판 뉴딜'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이란?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다. 즉 '한국판 뉴딜'은 한국의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바뀌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정망 강화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각 분야별 세부 과제 중에서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AI)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Digital Twin), ⑥국민안

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⑧ 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약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01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5G·AI 기반 지능형(AI) 정부, ④K-사이버 방역 체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둘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⑤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를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하는 한편,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⑦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⑧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 도입된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넷째, 'SOC 디지털화'를 위한 과제로는 ⑩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⑫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

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의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02 녹색 생태계 회복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산화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구현하고자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으로 설정했다. 그린 뉴딜은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며 그린모빌리티를 확대해 혁신적인 녹색산업의 기반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특히 학교의 경우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녹지를 조성하고, 각종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둘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④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⑤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⑥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설정하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는 등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⑦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⑧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을 조

성하는 한편,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또한 녹색전환 인프라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그린 뉴딜을 통해 약 65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1,229만 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 KT

한편 정부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상병수당(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쉴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녹색 융합기술 핵심인재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 1,000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G, AI 등 KT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과제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 KT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New Deal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①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② 지능형(AI) 정부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④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⑧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⑨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장마와 태풍이 남긴 인류의 숙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산업화 이후 인간은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배출된 부산물과 폐기물은 모두 지구를 병들게 한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소비 활동이 경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번 여름에 발생한 긴 장마와 잦은 태풍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54일간의 장마와 3연속 태풍

올해 여름 장마는 총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강수량은 1973년 이래로 세 번째로 많았다. 장마전선이 오랜 기간 많은 양의 비를 뿌리면서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겼다. 그뿐만이 아니다. 장마가 끝나고 잠시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싶더니 2주 동안 태풍 3개가 연달아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인도, 네팔 등 남아시아에서는 몬순 폭우로 홍수가 일어났고,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두 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면서 약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대규모 허리케인과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의 이상기후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필연’이라고 지적한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상기후 역시 올해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매년 반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책 속에 등장하는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재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근 SNS에서는 이번 비를 ‘장마’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선언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지구온난화가 일으키는 이상기후들

‘이상기후’란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값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상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마뿐만 아니라 폭염, 태풍, 가뭄 등 한반도에 미치는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연평균 9.4회였던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간 15.5회로 증가했으며, 태풍도 지난해에만 7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를 알리는 뚜렷한 신호이며, 그 중심에는 지구온난화가 작동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변하고, 이것이 홍수와 가뭄 등 세계적인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이다.

올해 유난히 길게 이어졌던 장마 역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고위도 지역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온난고기압, 이른바 ‘블로킹’이 발생하면서 주변 대기의 흐름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층 제트기류의 흐름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우랄산맥과 중국 북동부에 만들어진 2개의 블로킹에 의해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에 계속 공급됐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히면서 장마전선이 오래 형성되었다.

올해 발생한 3연속 태풍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다. 태풍은 수온이 높아질수록 그 위력도 강해진다. 태풍이 따뜻해진 바다를 지나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태풍의 위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여름철 폭염도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깊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에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가득 찬다. 뜨거운 공기가 대기 위로 올라가면 고기압이 활발해지고 기온은 상승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도 폭염에 영향을 끼친다. 물이 식는 속도는 공기가 식는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폭염도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는 가뭄도 증가시킨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그 결과 지표면은 대기 중으로 수분을 빼앗겨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지구도 시원해진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높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바다와 토양에 있던 온실가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로 인해 평균기온이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상승한 온도로 인해 해양과 토양 속 온실가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일상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우리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결국 우리가 사용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전망

유료방송사업자 한 곳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최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KT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 짚어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되다

이번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그동안 유료

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조항이 마침내 폐지된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사업자의 공격적인 M&A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율적 구조개편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폐지하며,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됐다. 다만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지상파·SO·위성·IPTV 상호 간에 전송 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진입규제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한편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앞서 지난 7월 KT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HCN을 인수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1위 지위를 확고히 했다. 현대HCN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권역(SO) 여덟 곳을 확보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인터넷 TV(IPTV)의 급성장, OTT의 공세 등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35%대로 끌어올리며 후발 경쟁사들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게 된다. 특히 현대HCN의 강점으로 꼽히는 수도권 영업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 이후 기업결합심사 과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KT의 관련 사업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OTT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와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앞으로 OTT



사업자도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는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과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에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 조항을 갖추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도 입법예고했다. KT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지난 8월 3일부터 올레TV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망 이용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직 넷플릭스로부터 캐시서버를 제공받지 않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이후 이와 관련하여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서버’란 기업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 두는 서비스이며, 그동안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이번 시행령에 근거해서 넷플릭스로부터 당장 망 이용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 이용료’가 아니라 ‘망 안정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넷플릭스와의 협상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CP들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시행령이 실질적 법 이행 조치로 이어져 서비스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음만으로 풍성한! 2020 Ontact 한가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인 한가위 분위기가 올해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이동자제를 요청하는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명절마다 매번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추석 열차표 예매도 50%나 축소됐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번 명절에는 '아쉽지만 가족과 집에서만 머물겠다'고 한다. 고향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명절'을 위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올 추석의 키워드

올해 추석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과 '건강'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으로 조상님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연휴를 보내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명절 인사마저도 선물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혼술', '혼밥'까지 더해져 간편식을 구매해 명절을 보내겠다는 의견도 많다. 랜선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음식을 만들거나 나만의 공간 꾸미기 혹은 그동안 미뤘던 새로운 운동법을 개발해 보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며 '언택트 명절'의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발, 오지 말거라

예전 이맘때면 자식과 손주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TV를 장식하고 동네마다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곤 했다. 지역 전통시장은 넘쳐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저마다 손에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명절에 사용할 재료들을 구입하며 즐겁게 웃는 모습이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현수막이 등장했지만 그 내용이 바뀌면서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하고 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올 추석 효도는 내년 추스에 두 배로 받을게”

지자체별로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뽑내며 이색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안 와도 된데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캠페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촉진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체육관이나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으라차차! 영구네!' 홈트레이닝 영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집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를 통한 운동방법을 다뤄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미안함과 감사함은 온라인으로

국무총리도 SNS에 이색 캠페인을 펼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 아닌 '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 시리즈가 그것이다. 부모님 편, 자녀 편, 삼촌 편으로 구성된 한 컷짜리 만화로 추석 대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부치지 말고 용돈을 두 배로 부쳐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고향 안 가는 게 효도래요.”

이색적이지만 강렬한 문구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하도록 국민께 요청드린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대신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하는 추세다. 다양한 선물을 직접 사서 주고받기보다 기프티콘 등의 온라인 선물 플랫폼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4050세대의 구매율이 2017년 대비 88%나 증가했을 정도로 온라인 선물하기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손 세정제,

마스크, 손 소독제로 구성된 이색 선물세트를 비롯해 위생에 도움이 되는 기능품들을 선물로 하는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미안함과 걱정, 감사한 마음은 온라인으로나마 분명히 서로에게 전달될 것이다.

집안에만 있어도 마음만은 새롭게!

고향 방문을 포기하게 되면 모처럼 여유 있는 연휴가 생긴 셈이다. 고향에서도 내려오지 말라 하고, 밖으로도 나가지 말라 한다.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잠시 떠올려보자. 누구나 평소 읽고 싶던 책 한 권, 드라마나 영화시리즈 몰아보기처럼 버리고 버리던 버킷리스트 한가지를 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창문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선뜻 응원할 것이다.

집에 머무르는 일이 오래될수록 주거공간과 인테리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동안 그저 '자는 곳', '쉬는 곳' 정도로 여기던 주거공간이었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집안에서라도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홈카페, 홈바, 홈트레이닝룸, 펫테리어, 식물로 꾸민 정원식 인테리어 등이 큰 인기다. 침실, 부엌 등과 같이 고정적인 역할을 하던 주거공간에 새로운 테마를 더해 '지루하지 않은 집'을 만드는 것이다. 어렵다고 겁부터 낼 필요는 없다. 실내장식부터 구조에 따라 공간을 완벽하게 스타일링하도록 도와주는 유튜브 채널 '집꾸미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직접 만드는 셀프 인테리어 전문 크리에이터 '나르'(Nar), 감성적이고 예쁜 집과 방을 모두 모아놓은 '오늘의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성국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기관 노동이사'

정부·여당 교감 속 관련법안 2개 발의 ... 21대 첫 정기국회서 법안처리 주목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쟁점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임이 무산되면서 노동이사는 핵심이슈에서 제외된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교감 아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났다. 애초 노동이사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발로 인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김경협·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서울시는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서울시 실행안과 여당 의원 발의법안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쟁점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임이 무산되면서 노동이사는 핵심이슈에서 제외된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교감 아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났다. 애초 노동이사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발로 인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김경협·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서울시는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서울시 실행안과 여당 의원 발의법안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다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은 2020년 1월 23명

의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지난 2017년 1월 서울연구원에서 1호 노동이사가 탄생한 이래 3년째다. 서울시는 17개 의무도입기관에서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이사'는 100명 이상 투자·출연기관에서 의무 도입해야 한다. 근로자이사는 서울시의 공식 명칭이다. 해당 기관 직원 100분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투표로 선출한다. 직원 300인 이상은 2명, 300인 미만은 1명의 근로자이사를 선출하며, 소속 부서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은 탈퇴해야 한다. 직원이 1만 6천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활동한 22명의 노동이사들의 재직기간은 3년에서 32년까지 다양했다. 평균 재직기간은 약 16년이다. 노조활동을 한 노동이사는 16명(약 73%)에 달한다. 해당 기관에서 선출 투표 시 노조활동 여부는 핵심 기준이었다. 노동이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사회에서 의견개진과 결의 주요 역할이다.

물론 노동이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비상임이사가 갖는 권한과 역할과 연동된다. 비상임이사는 의제 부의와 심의 보류, 감사 의뢰, 경영정보 열람 및 자료제공 요구, 임원추천 참여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 노동이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기관 이사회는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노동이사들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이사들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를 설립해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 및 정부기관을 겨냥한 노동이사 법률안과 서울시 사례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상임이사' 대 '비상임이사' 조항 쟁점

21대 국회에 제출된 노동이사 관련법안은 2가지이다. 김경협·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서울시 안과 비교해 김경협·박주민 의원안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다. 서울시 실행안에서 노동이사의 직위는 비상임이사로서, 김경협 의원안과 동일하다. 반면 박주민 의원안은 상임이사로서 직위를 규정했다. 서울시 안보다 노동이사 권한이 강화됐다. 이사회에서 의견개진 및 결의 권한을 갖는 비상임이사에 비해 상임이사는 의제 부의와 심의 보류, 감사 의뢰, 경영정보 열람 및 자료제공 요구, 임원추천 참

여 등의 권한 갖는다. 여기에 감사위원 참여까지 열어놓았다.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노동이사 선출인원의 경우 서울시 안과 박주민 의원안이 유사하다. 서울시 안은 300인 이상, 박주민 의원안은 500인 이상 기관에서 2명의 노동이사를 선출한다. 반면 김경협 의원안은 기준 없이 모든 기관에서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출한다. 선출방식도 서울시와 박주민 의원안의 안은 100분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반면 김경협 의원안은 과반수 노조, 없을 시 과반수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는 자로 제한했다. 서울시 안에서 노동이사는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만 노조를 탈퇴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휴직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탈퇴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체로 서울시 실행안과 김경협 의원안은 유사하며, 박주민 의원안은 차별화된다.

17개 서울시 산하·출연기관의 이사 가운데 노동이사는 10%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경영권과 주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는 과도하다. 되레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메기효과'를 만들어냈다"며 "노동이사들은 내부규범을 만들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시 노동이사는 새로운 변화 모델을 만들고 있다.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그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노동이사제 서울시 실행안과 김경협·박주민 의원 발의안 비교>

	기관	직위	인원	자격	선출	근로관계 연계	개정법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외 16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비상임이사	1인 이상	없음	과반수 노조 및 과반수 노동자 대표 추천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외 11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상임이사 감사위원	2인 이상 (500인 미만은 1인 이상)	1년 이상 재직자	100분의5또는200명중작은수이상의추천을받은자(복수추천)	유지 및 휴직처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시	정원100명 이상투자 출연기관	비상임이사	2인 이상 (300명 미만 1인 이상)	없음	100분의5또는200명중작은수이상의추천을받은자(복수추천)	유지 및 노조탈퇴	서울시 조례

2020년 단체교섭 결과 향상된 복지·복무제도 안내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계시죠?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2020년 단체교섭 결과로 얻은 알차고 든실한 열매... 향상된 복지와 복무제도를 알아봅시다.

다양한 단체교섭의 성과들을 12가지 항목으로 알려드립니다. (괄호 속 시행일 참조)

12

1. 미래육성 포인트 신설
입사 10년차 이내 직원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직원에게 연 50만 복지포인트를 제공합니다. (2021. 1. 1)

미래육성 POINT

2.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배우자 지원금 연간 1인당 20만원으로 인상 (2021 건강검진시)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배우자의 검진 단가가 올랐네. 15만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네.

어서 와~ 20만원은 처음이지?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직원의 부모 검진도 동일 적용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직원 대상(배우자 포함) 난임시술 비급여항목 본인 부담금 지원 (2021. 1. 1)

너무 잘됐다~. 우리아가 빨리 만날 수 있겠네.

재직기간 중에 최대 300만원까지래.

4. 상조서비스 개선 현 재직자 중 희망 직원에게 구좌 추가 운용. 회사와 직원이 10년간 월 균등금액(15,000원) 납부 (2021. 5. 1)

자녀들의 부담을 줄여주니 고맙군.

※ 재직기간에 한하여 가입 시점부터 지원되며, 회사 지원금이 12,5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됩니다.

5. 가계안정 대부개선
6. 사내근로 복지기금

'입사 전 학자금 대출금 상환 무이자 대부' 지원 대상에 대학원도 포함된다~. (2021. 1. 1)

사내근로 복지 기금도 650억원 출연(올해중)

7. 생활법률상담서비스 운영
민사일반, 주택·임대차 등 생활법률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 시행
※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2021)

쉽게 설명 들으니 이해가 쏙쏙~!

法

8. 안식년 휴가제 대상 확대
※ 회사 부여 휴가일 + 개인 연차일 연속 사용(각 5일) (2021)

근속 5년 도래하면 2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네.

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직원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의무화함(2021)

3시간이라는 휴가가 풀이네~.

※ 보수를 포함한 기타 근로조건은 정상근무와 동일합니다(임신정보 등록시 복무시스템 자동 반영)

10. 반차제도 개선
최대 14회 → 20회 (2021)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반차 횟수가 늘었거든.

진짜?

아빠 오늘 치킨 사서 일찍 간다.

11. 부서장 재량 포상휴가 신설
부서장이 1인당 연간 최대 7일 포상 가능 (2021)

고향 앞으로 출발~.

총!!성!!

사기 up

12. 유연근로제 개선 (2021)

'선택근로제'로 일원화합니다.

- 선택근로제, Core Time 근로제, 가족사랑유연근로제 → 선택근로제 통합
- 근로시간: 일 최소 4시간(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결정, 주 단위 신청)
- 근로 가능시간대: 06사~20시 (필수근로시간 11~15시 폐지, 재택근무 가능)

※ 재량근로, 간주근로, 탄력근로 등 기타 유연근로제는 유지

여러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늘어났죠? 코로나 속에서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단체교섭 성과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판]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강남/서부고객본부 강남OSP담당 OSP운영부 OSP품질개선팀 김남석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교섭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합니다.

강남/서부고객본부 수원지사 남수원지점 CM1팀 박영식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T 명장' 제도는 참 좋은 시도로 생각합니다.

전남/전북고객본부 북광주지사 수완지점 CM2팀 김광수
조합소식과 함께 새롭게 개편되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KT 명장 선발 소식도 참 반가웠습니다. 향후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구/경북고객본부 구미지사 영업기획팀 김동한
요즘 끈대, 라떼 등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KT 명장' 제도가 직장 내의 세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산/경남고객본부 서부산지사 마케팅부 소매영업팀 이아라
최근 코로나19와 폭우, 태풍, 독감 등으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조합원들이 있기에 KT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모두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강북/강원NW운용본부 강북무선운용센터 총정엔지니어링부 김재성
'2020 희망사연 공모전'이 인상깊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고 있는 조합원분의 사연을 보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KT노동조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서부NW운용본부 서부무선운용센터 인천엔지니어링부 황용완
코로나19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이 현실에 적응해가면서도 여전히 불편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 희망사연 공모전'을 보면서 조합원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며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 서부법인고객컨설팅센터 법인고객컨설팅부 미래융합컨설팅2팀 이성훈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앞으로 펼쳐질 삶의 변화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 호를 읽으며 언/온택트, 뉴노멀, 뉴트로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이미 조금씩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주요 트렌드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 강남법인고객컨설팅센터 법인고객컨설팅 기획부 컨설팅기획팀 김범석
이번 호에서 노동조합 'KT 명장' 제도 첫 도입 관련해 사우 두 분의 인터뷰 기사를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KT 명장이 속속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전략채널지원본부 수납지원센터 수납1부 고객채권팀 조용생
노동조합의 다양한 소식이 담겨 있어 매우 즐겁게 읽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와 뉴트로 열풍 기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KTTU QUIZ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판'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 가로1** 2020년 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하나로, 민사나 주택·임대차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전문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11페이지 참고)
- 세로1** OTT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법안의 이름은? (27페이지 참고)
- 세로2** 배우자를 포함해 난임시술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명칭은? (32페이지 참고)

	세로 1									세로 2									
가로1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소감과 함께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01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이 자본금 100%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회사

02

(주)다운플랜은 KT그룹 임직원 애경사 복지를 지원하는 법인

03

(주)다운플랜 가입회원은 상조와 웨딩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04

장례시 장제용품, 근조화환, 근조기 위탁 운영
(지원되는 KT그룹사에 한해 지급)

05

결혼시 축하화환 위탁 운영
(지원되는 KT그룹사에 한해 지급)

06

선수금(미리 받은 회비) 보존의 안정성

“다나상조, 다운플랜, 더케이에다함상조 등 총 17개 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는 회사로 조사됐다.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그룹사 전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고품격 장례/웨딩 서비스입니다.